

‘일상정취’ 국내 유일 아시아축제 팡파르

ACC 예술극장 야외무대 일대 등 내달 3일부터 아트마켓·문화주간 17개국 80개 부스 먹거리·수공예 인도 전통 춤 ‘쿠치푸디’ 공연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0월 3~6일까지 4일간 ACC 예술극장 빅도어 야외무대 일대에서 ‘아시아아트마켓’을 개최한다. 이어 10월 3~13일까지 아시아문화주간을 열어 다채로운 공연·전시 등 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 아시아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과 특징을 공유하고 동시에 아시아를 이해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아시아아트마켓은 ‘2024 아시아문화주간(10월 3~13일)’의 대표행사로 올해는 17개국 80개의 부스가 참여한다. 지난해 보다 규모를 확대한 아시아아트마켓은 관람객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아시아 전통공연 등으로 구성했다. 방문객들은 아시아 각국의 먹거리와 수공예품을 즐기며 아시아 예술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아시아 현지 예술가들의 공연과 춤이 함께 어우러진 무대가 관객을 맞는다. 인도문화원-인도사랑축제(사랑-인도문화축제)와의 협업으로 인도 전통 춤 중 하나인 ‘쿠치푸디’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전통의상을 현대적으로 소개한 의상 퍼포먼스도 볼 수 있다.

또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의 대사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니어앤디어마켓’ 홍보부스가 참여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마켓이 아닌 문화와 예술, 정보와 교류가 이어지는 하나 된 아시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색 있는 아시아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커피를 통해 태국의 자연과 카렌족의 삶이 변화하길 바라는 말라커피 따주(Tazu) 대표를 비롯해 섬유 영역을 넘어 사람·문화·환경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텍스타일 디자이너 누사라 텅게이트(Nussara Tiengket), 인도네시아 자연환경 보호와 예술가들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무라카비(Murakabi Movement) 팀, 육아카르타



다음달 3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빅도어 야외무대 일대 등에서 아시아 아트마켓과 아시아문화주간 행사가 열린다. ACC 제공

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패션 디자이너 루루루트비라비비(Lulu Lutfi Labibi), 태국의 느린공정의 값어치를 소개하는 브랜드 카르마로컬(Karma Local) 등 부스를 통해 아시아인의 전통과 삶을 한 곳에서 엿볼 수 있다.

‘아시아문화주간’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열정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아시아축제로 올해는 ‘아시아의 의식·주: 일상정취’를 주제로 열린다. ACC는 아시아문화협력 강화 및 아시아 이해·참여 증진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아시아

문화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아시아인의 문화교류 열정을 담은 문화행사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오는 10월 4~5일 문화정보원 극장2에서 전통예술공연 ‘판: PAN’을 선보인다. 오는 10월 4~6일 문화정보원 극장3과 예술극장 야외무대에서는 ‘2024 아시아스 크린댄스’를 개최,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아시아 전역의 무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오는 10월 12일 문화정보원 썬큰무대에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전통음악공연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시,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마련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아시아아트마켓을 통해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일상을 체험하고 공감했으면 한다”면서 “아시아 현지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에 많이 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젊은 예인들이 펼쳐낸 ‘전통의 미래’

28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국립남도국악원은 연주단원들의 예술적 기량을 뽐내는 기획공연 젊은 예인전 I ‘전통의 미래’를 오는 28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선보인다.

국악 연주단원들이 준비한 이번 공연은 각자 공연 구성부터 연출, 안무, 출연까지 모두 합심해 만들어낸 무대다. 전통음악부터 창작음악까지 각자의 개성이 드러난다.

이번 공연은 장보름이 단원의 ‘신 선유락’을 시작으로, 장예은·장윤혜 단원의 가야금·거문고 중주 ‘숲길’, 문희영 단원의 ‘춤, 짓다’와 ‘초록으로 물들다’, 문가영 단원의 피리·거문고 중주 ‘육자배기’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궁중정재 선유락을 재해석해 뱃줄을 끄는 장면을 미적으로 접근한 장보름이 단원의 ‘신 선유락’으로 무대를 연다. ‘신 선유락’을 선보이는 장보름이 단원은 경기도무형유산 경기도당굿 시나위춤 이수자이자 전라남도무형유산 진도북놀이 이수자로 현재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수석을 맡고 있다. 이어 피아니스트 윤한희의 ‘사려니숲’ 원곡과 민요 새타령과 거문고 산조 중 중중모리를 합쳐 편곡한 ‘숲길’을 가야금 장예은 단원과 거문고 장윤혜 단원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장예은 단원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수교육생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현재 단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학업을 놓치지 않는 노력과 연주자이다.

문희영 단원은 삶의 희노애락이 담긴 창작무용 ‘춤, 짓다’와 남도시나위 가락에 맞춰 한의 정서를 신명나게 승화한 ‘초록으로 물들다’를 펼쳐낸다.

마지막으로 문가영 단원과 노택용 단원의 연주로 피리·거문고 중주 ‘육자배기’를 선보인다. 피리를 통해 연주되는 ‘육자배기’의 메기고 받는 선율이 눈길을 끈다. 문가영 단원은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자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전라삼현육각 전수자이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



국립남도국악원 젊은 예인전 ‘전통의 미래’ 포스터.

무소와 국악원, 오산초등학교(고군면)를 거쳐 회동(신비의 바닷길) 등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1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참조 또는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 도선인 기자

횡단과 개입을 통한 재해석... 오버랩 ‘인터루드’ 전

29일까지 ICC 결과 보고전 이도현 신진 큐레이터 참여

독립큐레이터 그룹 오버랩(OverLab.)이 오는 29일까지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ICC 결과 보고전으로 ‘인터루드 Interlude’를 선보인다.

오버랩은 지난 4월 ICC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통해 2인의 신진 기획자를 선정해 여러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를 꾸린 신진 기획자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도현으로, 그는 광주 출신의 시각·문학 분야 작가와 협업한 연구 결과물들을 선보인다.

전시명인 ‘인터루드’는 음악과 극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간주, 막간극이라는 뜻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의미와 더불어 개입, 횡단의 의미를 확장해 적용했다. 전시 또한 시각예술의 형태와 사

운드, 극의 형식이 결합돼 구성된다. 이도현 기획자는 동양에서 말하는 천(하늘), 지(땅), 인(인간)의 세 가지 개념을 예술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연구와 기획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인터루드’전은 천지인 삼원소 중 지(地), 땅의 요소에 주목한 전시로, 땅에 씌워진 요소들을 분석·해체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긴다.

함께 협업을 진행한 시각예술가 조은솔 작가는 ‘Heavenly Bodies(헤븐리 바디스)’라는 제목의 혼합매체 설치작품을, 이서영 작가는 ‘내가 이곳에서’라는 제목으로 111개의 낱말로 구성된 한 편의 시를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두 작가가 함께한 사운드 작품의 호흡이 흥미롭다.

이도현 기획자는 “창작자와 기획자 서로 간의 횡단과 개입의 행위가 어떻게

‘땅’의 (씌워져 버린) 속성을 벗겨내며 분해하여 재해석을 시도하려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감상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삼원소의 나머지 요소인 인(사람)과 천(하늘)의 기획 전시도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버랩의 ICC는 ‘Independent Curator Collaboration(독립 큐레이터 협업)’의 약자로, 2017년부터 해마다 1~2회 진행하고 있다.

인문학 세미나를 통해 전시 주제를 심화시키고 이미지 연구, 비평 워크숍 및 멘토링 과정을 거쳐 독립전시기획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오버랩 전시장은 남구 구성로에 있다. 전시 관람은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다.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전시 연계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달항아리 미학... 정상섭 ‘달빛소나타’ 전

내달 10일까지 호심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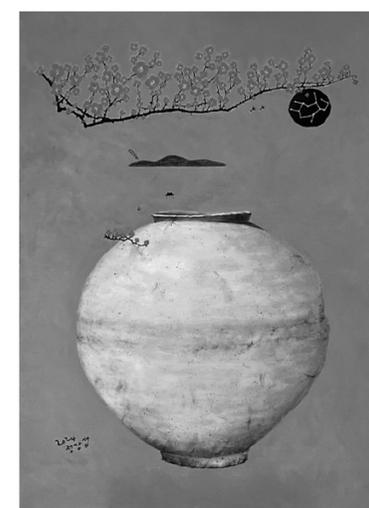
광주대학교 호심미술관에서 오는 10월 10일까지 정상섭 작가의 ‘달빛소나타’ 전시회가 열린다.

작가는 사실로 사의하는 화가이다. 음악을 들으며 작품을 구상하는 그는 요즘 우윳빛 조선백자 달항아리에 천착했다. 자연스럽고 너그럽고 자유롭고 여유롭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 100호 4점 등 20여점을 선보인다.

달항아리에 매화, 정자, 새, 별자리 등을 배치한다. 동양예술의 점경(눈길을 끌기 위해 그린 정자, 탑, 다리, 인물 등 자연 외 사물) 같다. 한데 어울려 정상섭만의 ‘시서화일치’를 이룬다. 서양의 사실(寫實)을 동양의 사의(寫意)로 승화시켰다.

정 작가는 “달항아리 거친 표면에 삼라만상의 자연이 영겨 있다. 자연의 대상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물을 단순화시켜 초현실적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준호호심미술관장은 “작가는 경험과 기억 속 점경을 단순하게 축약하여 의인화시키며 이상적인 사의로 ‘달빛소나타’



정상섭 작 ‘달빛소나타’.

광주대 호심미술관 제공

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섭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과 및 동대학원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국제현대미술교류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